

'빛장을 여는 사람들'

1994년 12월 15일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삶을 사회화 시키고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여성분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빛장은 많은 고민과 의식의 공유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다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고착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의식구조가 장애여성들을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의 과정 속에서 각 회원들의 삶을 재조명하게 되었고 끈끈한 사랑과 믿음으로 결속되어 왔습니다.

그 고리가 지속되어 95년 4월에 실시한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기초의식 조사로써 활동의 모태를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주간모임과 원레모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주간모임(수요일)에서는 구체적 문제 접근을 위한 연구와 빛장의 발전을 위한 토의를 해왔고, 원레모임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참여하여 비디오 보기, 자기 이야기하기, 교양 교육 등의 의식 함양을 하고 이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의 틀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96년에 수기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0월에 '여성장애인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로 교육, 고용, 결혼, 가족간의 의사소통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장애를 가진 여성의 문제를 사회에 알려낸 바 있습니다.

이의 공로로 '97년 3월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디딤돌상을 수상하게 된 수상 자체의 기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소중하게 안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문제가 현재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이들만의 고정적 문제로 대별될 수 없다는 여성계의 수용과, 여성으로 부딪히는 장벽도 높은데 장애까지 위게 될 경우 상실하게 될 사회적 기능을 사회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들이 강한 근육을 가지게 될 계기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95 북경세계여성대회의 후속작업으로 '97년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DC에서 92개국 이 참여하는 국제여성장애인 리더십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 포럼에 초청을 받고 한국에서 9명의 장애여성이 참여합니다. 여기서 세계 여성장애인 운동의 흐름을 배우고 한국여성장애인의 삶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확대된 안목을 지니게 될 것을 기대하고 보다 분명하고 효과적인 활동의 방법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빛장을 여는 사람들'은 새롭게 운영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틀로 여성, 장애인 그리고 이들을 포용할 사회의 모순이 개선되어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연구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